

| 예 배 | 일 시 | 장 소 |
|------------|--------------|-----------|
| 새벽 기도회 | 토요일 오전 7시 | 예배당 |
|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1시45분 | 예배당 |
|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45분 | 교육관 5번 교실 |
| 유초등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 35분 | 교육관 7번 교실 |
|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시 | Zoom |
|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시 | Zoom |
| 예배 봉사자 기도회 | 주일 오후 12시45분 | 유아실 |

주일 예배 봉사위원

| | 01. 31 | 02. 07 | 02. 14 |
|---------|--------|--------|--------|
| 대 표 기 도 | 이상호 목사 | 정용현 집사 | 김호종 집사 |
| 성 경 봉 독 | 장용환 형제 | 정용현 집사 | 김호종 집사 |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신약통독-1월 24일~4월 3일(70일) 하루에 4장을 읽으면 마치게 됩니다. 신약을 다 읽게 되면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주시시오.
2. 귀국 - 이에스터 자매(27일(수)-프랑크푸르트 출발
3.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우동정

| 생일 | 이예준 형제(28일) |
|----|-------------|
| | |

지난주통계

| | |
|----------|--|
| 주일헌금 | |
| 십일조 | |
| 감사헌금 | |
| 구제헌금 | |
| | |
| 합계(Euro) | |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257장 다같이
- 기 도 Gebet 김영희 시무권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롬 7 : 19 - 25(신p248) ... 김영희 시무권사
(Römer 7:19~25)
- 설 교 Predigt 나는 곤고합니다!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259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이상호 목사

기쁨과 평안

참담한 심정으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할 수는 없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무언가가 숨어서 자꾸만 기쁨을 내 밖으로 끄집어 냈습니다. 그것은 기어코 믿음 대신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과연 내 결정과 행동이 옳은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정적으로 변해 갔습니다. 신뢰보다는 회의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당신을 물들게 합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돌고 돌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각자의 생각대로 해답을 얻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간단한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분명히 기쁨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의심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의심을 통해서는 결코 기쁨을 누릴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언제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함이 주는 기쁨 / Joyce Meyers 목사
(미국 은퇴 목사)

***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믿음 그 자체가 구원이다.**

- William Temple(1881~1944년)-